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박문수 의원

“사무인계인수 연속성과 지속성 가져야”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6일 본회의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르면 강북구청장, 담당관, 과, 동 주민센터의 팀장 이상 등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무인계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인계인수는 같은 규칙 별표에 있는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사무인계인수서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사무인계인수서 작성과정에서 감사 담당관 주관으로 사무인계인수서의 적정 작성 여부를 사전검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써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밝힌 뒤 영상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1일과 7월1일자 인사이동 때 과장, 동장, 팀장들이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별 작성 상태 현황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충실하게 작성했지만, 몇몇 직원의 경우 작성할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빠트리거나 또는 작성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작성한 경우와 작성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신상발언, 위원회 질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적사항 및 올바른 대안들이 사무인계인수서에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마도 관련 규칙에 작성할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인계인수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인계인수사항에 구의원 제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사무인계인수사항의 각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와 항목별 서식의 변경,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하루 속히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간 1회 정도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수 의원은 “이와 같이 집행부의 중요 사항 중 하나인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